

농진청, ‘찰옥5호’ 식미·기계수확 현장 선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7월 16일 충북 충주시 살미면에서 찰옥수수 신품종 ‘찰옥5호’의 식미 평가와 기계수확연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7년 보급 목표… 종자 생산 기반 본격 준비

농촌진흥청이 찰옥수수 신품종 ‘찰옥5호’의 품질과 기계수확 가능성을 현장에서 선보이며 옥수수 생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6일 충북 충주시 살미면에서 ‘찰옥5호’ 식미 평가와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전라 작물인 옥수수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농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식량과학원과 국립농업과학원,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 관계자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역 농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찰옥5호’의 맛과 품질을 기존 품종과 비교한 결과 “식감이 찰지고 쫄깃하며 당도가 높고 알이 굵어 씹는 맛이 좋다”고 평가했다.

‘찰옥5호’는 2024년 출원된 찰옥수수 품종으로, 직립형 초형에 겉가지 발생이 적어 재배 관리가

비교적 쉽다. 이삭 끝달림률이 높아 상품성이 우수하고, 찰성과 얇은 과피로 뛰어난 식감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삭을 감싸는 포엽이 기존 품종보다 질기고 두꺼워 조명나방 피해에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도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에서 30개 당 1만4천500원으로 당일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중도매인과 대형 소매 유통업체 관계자들도 식

감과 당도, 이삭의 굵기 및 끝달림률 등을 높게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옥수수 수확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한 ‘자주식 식용 옥수수 수확기’도 공개됐다. 해당 수확기는 줄기 예측·파쇄부터 이삭 따기와 수집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기존 인력 중심 작업은 10a당 14.7시간이 소요됐지만, 수확기를 활용하면 작업 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농가 시범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영 농촌진흥청 기초식량작물부장은 “2027년부터 새로운 ‘찰옥5호’를 맞출 수 있도록 종자 생산과 보급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장은 “자주식 식용 옥수수 수확작업을 기계화로 전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주민 참여형 소득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신안군은 발전 수익을 장학금, 시설 개선, 문화행사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환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농진원, 농식품 기술협력·사업화 본격 연계

리버스 피칭으로 협력 기반 강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6)의 부대행사로 ‘Agri-Innovation Hub & 농식품 오픈이노베이션 통합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 분야 대·중견기업과 유망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보호 교육부터 농식품 분야 대·중견 기업의 리버스피칭(Reverse Pitching),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상생협력의 기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네트워킹 지원까지 이루어졌다.

기술보호 세미나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내용을 소개하고, 2025년 개정된 대중소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비밀유지계약(NDA) 활용 방법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했다.

리버스 피칭에서는 굿네이버스글로벌인팩트, LG생활건강, 네이버클라우드가 참여했다. 각 기업은 개방형 혁신의 추진 방향과 협업 분야, 각 기업의 사업 전략에 맞춘 수요 기술 등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공유했다.

농진원은 현재 운영 중인 농식품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을 소개하고, 프로그램별 운영기관이 직접 올해 운영계획과 협업 분야를 발표하며 프로그램별 참여기업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새로운 협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농정원, 양운식 총괄본부장 취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20일 양운식 신임 총괄본부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임 양운식 총괄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제주지역 본부장

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

안전과장,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한 농식품 분야 정책 전문가다.

양 총괄본부장은 농업 현장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은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농정원의 주요 사업을 총괄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대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양 총괄본부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농업 현장 중심에 있는 농정원의 일원이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원들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정원이 농업·농촌 세대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제2회 종자 사진 공모전’ 개최

국민 누구나 참여… 종자 가치 알리기 나서

국립종자원은 종자에 담긴 생명과 희망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2회 종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한 컷으로 만나는 미래의 씨앗’이다. 새로운 품종의 종자가 개발·생산돼 수확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종자산업 현장, 일상에서 만나는 종자의 생명력과 희망을 담은 사진을 모집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7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촬영 시간과 장소 등 메타데이터로 촬영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국립종자원은 주제 부합성, 작품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 10점을 선정한다.

대상 1점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1점에는 국립종자원장상과 100만 원, 우수상 3점에는 각 50만 원, 입선 5점에는 각 10만 원이 수여된다.

최종 결과는 11월 3일 발표하며, 수상작은 향후 전시회와 정책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양주필 국립종자원장은 “일상 속 특별한 순간과 이야기를 통해 종자에 담긴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종자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모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국립종자원 제공

NH농협금융, 농촌 어린이·장애인 자립 함께 지원

농촌 초등학생에 수제쿠키 500세트 전달

NH농협금융(회장 이찬우)은 지난 7월 20일,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가치를 되새기며,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온정을 전달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농협이 범국민적으로 추진 중인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심천심 운동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협의 핵심 실천 운동이다.

농협금융은 저출산과 지방 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이 즐겁고 활기찬 방학을 보내고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특별한 수제쿠키 50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발달장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장애 근로자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농촌 복지 향상이라는 농협의 사회공헌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농협만의 상생·포용 경영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도곤 NH농협금융지주 성장전략부부장(부사장),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 영천시지부장, 영천시교육지원청과 영천 YMCA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NH농협금융은 지난 20일,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가치를 되새기며,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온정을 전달했다. 임도곤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이 수제쿠키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농협 제공)

DONG OH
국내 최고의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융합형 농업솔루션 제공자
경농

대파밭 광엽잡초 전문 제초제
파레트

까마중

명아주

털별꽃아재비

어저귀

01 대파에 등록된 유일한 광엽잡초 경엽처리 제초제
02 대파 뿌리에 영향 없는 안전한 경엽처리 제초제
03 광엽잡초(미국나팔꽃, 털비름, 둥근잎유홍초 등)에 대한 방제효과가 우수하며, 빠른 효과 발현

적용대상 : [대파] 일년생 광엽잡초

강농 카카오톡 친구추가

고객상담전화 1899-0584

● 사용 전에 표기내용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표기내용 표기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십시오.
● 농약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식물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